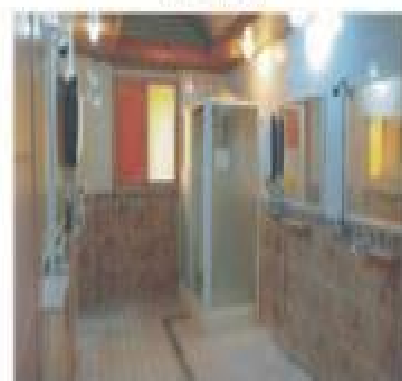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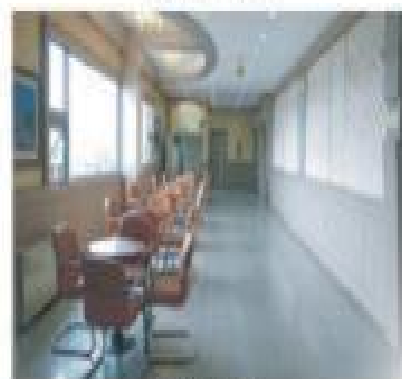
군산장례(전문)예식장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9300 **fax.** 051-441-1210

창원 **tel.** 055-211-5000/0050 **fax.** 055-211-7200/0200

서울 **tel.** 02-315-3811 **fax.** 02-315-3877

지역/모습사 (주) **tel.** 063-381-1800 **fax.** 063-381-1800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김민재
운영위원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준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군산예총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군산도시활성화연구소 대표
ycm1022@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솔원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김선순 편집위원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정미란 편집위원
서강SLP 군산 영어학원장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수필집 『Essay in May』
jmr6114@hanmail.net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
(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Vol.177 | 2026.05·06



회	영	위	원	장	박	승	일	newgunsanews@naver.com
운	행	장	김	민	재	재	newgunsanews@naver.com	
발	사	인	채	명	룡	ml7614@naver.com		
부	부	강	권	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장	이	준	은	gsport11@naver.com		
취	위	원	박	세	원	hamp38@hanmail.net		
편	위	원	신	성	호	shinez2580@hanmail.net		
집	위	원	오	성	렬	poi3275@naver.com		
집	위	원	이	영	미	ycm1022@hanmail.net		
집	위	원	정	미	란	jmr6114@hanmail.net		
칼	럼	니	스	트	배	수	jlmjlm710@naver.com	
칼	럼	니	스	트	신	솔	speedal@hanmail.net	
칼	럼	니	스	트	공	종	kong@kunsan.ac.kr	
칼	럼	니	스	트	김	선	3585711@naver.com	
칼	럼	니	스	트	김	철	www.crabland.com	
문	위	원	이	진	우	jay0810@hanmail.net		

고용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평가: 2020 46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용직업교육 통찰인증대학 | 교육부 고용직업교육거점 자부(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채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사립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대성로

군장대학교

여성시대

선거는 종종 뜻밖의 결과를 내기도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군산시의원으로 활동했던 6명의 여성 시의원 중 3명은 살아남고 3명은 낙선했다.

재입성한 분들을 말하자면 송미숙, 김영란, 윤신애 의원 등이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의원에 입성한 12명의 초선 의원 중 여성이 7명이나 된다. 앞서 제9대 군산시의원으로 활동했던 3명을 합치면 전체 24명의 의원 중 여성이 10명이나 되는 셈이다.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소리도 많다. 말하자면 구색 맞추기 혹은 자리 채우기식을 걱정하는 소리들이다.

초선 여성 시의원들을 살펴보면 다 선거구, 라 선거구, 사 선거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최경애, 최유정, 김효주와 함께 바 선거구의 이명미 등 4명이 지역구를 통해 입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강수정, 박다혜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이화숙 등이다.

비례대표 3명의 시의원을 포함한 초선 7명의 의정 활동 역량을

하루빨리 성장시키는 건 군산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성 3선 의원인 송미숙 의원이 민주당 내 부의장 경선에서 선출되면서 “부의장실을 여성 의원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항시 개방하고,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는 소식이다.

매우 적절한 대안이다.

덧붙이자면 이번 기회에 여성 의원들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아직까지 시의회 안에 여성 의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여성들만을 위해 필요한 공간 등이 마련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른바 ‘여성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군산시의회의 자화상이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거울을 보듯 바라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개선하길 바란다.

그래야 군산 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소홀한 여성 의원들에게 회초리라도 들 수 있을 게 아닌가.



글 | 채명룡
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봉사하는 삶, 그것은 ‘운명’ 제8대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김민재 이사장

글 | 채명룡 (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봉사의 삶을 살아왔던 군산장례식장 김민재 대표가 ‘봉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의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5월 6일 제67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8대 이사장으로 김민재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7년 말까지이다.
군산 지역사회에서 묵묵하게 봉사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그이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김민재라는 새 인물이 ‘자봉’에 수혈되면서 살짝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이었던
이 단체가 ‘웃음꽃 피는 봉사 단체’로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헌신이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몸을 던지는 희생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내가 행동함으로써 가치가 더 빛나는 일, 그것이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다. 누구나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옮기기는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불려왔다.

김민재 이사장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요람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 역할을 맡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단체이기에 김민재와 같은 봉사의 리더십이 필요했으리라.

'자봉'에는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이며, 봉사자들에게는 리더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으로 더 많은 참여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주님, 저의 양식을 내어 저들을 돕게 하소서.

김민재 이사장은 2016년(3대)부터 '자봉'의 임원(이사)을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살아 있는 이들의 마지막 친절'이라고 하는 군산장례식장 대표를 맡을 때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 『주님, 하루 한 끼도 드시지 못하는 어린 양들에게 저의 양식을 내어 돕도록 하소서.』 장례식장을 인수받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스스로 '무료급식소 운영은 나의 인생'이라고 다짐했으며, 지금까지 그때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서군산무료급식소'에서 매일 300여 명의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이주해 온 '새터민'들을 위한 봉사에도 정성을 다했다. 노인 이미용·목욕 봉사, 반찬 배달 봉사 등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성공과 실패는 하느님의 뜻이며, 이 세상을 만드는 건 오직 봉사와 희생이라는 그의 생각은 늘 따라다녔다. 자신보다 주변을 위하고, 나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먼저 헤아리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세월이 흐르자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자봉' 이사장 자리는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운 게 아닐까.



시민 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바쁜 것을 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김민재를 보면서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되새긴다. '자봉'의 이사장직을 수락하며 그는 "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자원봉사 활성화와 법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자원봉사

자들이 보다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속 가능한 봉사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 단체가 봉사인 김민재를 리더로 세웠으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이다.



어르신 급식 봉사 현장을 직접 챙겨왔다.



광범위한 사회 참여, '자봉' 활성화에 기여

거절하지 못하는 그는 천성 탓일까. 그의 사회 참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탈북민 봉사단체 위원장을 할 당시 탈북민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제주도 탐방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렵고 힘든 행사였는데, 자유를 찾아온 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도전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에서도와줘 의미 있게 제주도 행사를 마무리했죠.”

그는 군산 YMCA 부이사장, 군산제일교 총동문회장, 군장대

CEO특별과정 총원우회 회장, 군산로타리클럽 회장 겸 연합회장, 월명라이온스 이사와 회장, 히열합창단 단장, 아사헬축구단 단장, 기독교장로회 임원, 남산도회 총무 등을 비롯해 성광교회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립예술단 사랑회 운영위원장, 군산경실련 이사, BBS 이사와 회장, 법무부 조정위원, 자유총연맹 이사, 기아대책위원회 이사와 회장, 국제기아봉사단 이사, 군산시민축구단 초대 구단주 등을 역임했다.

그런 김 이사장의 사회 참여가 '자봉'의 활성화에도 나름 기여할 것이라.



군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을 역임했던 당시의 김만제 이사장이 경찰의 쌀과 생필품 후원을 받고 있다.



‘다들지 않은 원석’에서 ‘봉사와 희생의 참 인물’로

‘다들지 않은 원석’이라는 미완의 대기를 지칭하는 말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봉사와 희생의 참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군산 지역사회 모두의 행복이다.

온몸으로 가시밭길을 헤쳐 왔으며, 신앙을 얻고 사업을 하면서 외롭고 힘든 이들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서라도 지역사회에 봉사로 화답하고 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아온 게 바로 오늘의 그의 인생이다.



“알아달라고 해 온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분들, 제가 도와주어야 할 분들을 찾아가고 마음으로나마 함께해 주는 게 저의 인생이며,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선행을 해 온 그의 진면목을 이제 군산의 지역사회가 알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겸손의 손을 모으고 푸

는 데 인색하다.
자원봉사센터라는 단체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면’ 그 하나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살짝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 김민재라는 인물은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를장을 뛰어넘어 군산 지역 봉사자의 맨 앞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군산장례식장 대표 김민재
(063)468-4119,4444

지금 군산에서 가장 궁금한 이름 주브로[@ju_broe']

글 | 이좋은
leejony_@daum.net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고향이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여행지인 군산.
하지만 이 남자의 스마트폰 렌즈를 거치면 군산은 매일 새로운 색을 입는다.

"여러분, 여기 아시나요?"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군산의 한 골목길이 미끄러지듯 열린다.
자글자글 끓어오르는 국밥과 노란 조명 아래 부풀어 오른 디저트.
단 1분 남짓한 숏폼 영상으로 보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주인공.
요즘 군산에서 가장 뜨거운 로컬 크리에이터 '주브로(ju_broe)' 이주형 씨를 만났다.



[카메라 렌즈, 공포에서 구원이 되기까지]

지금은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 화려한 화면 뒤에는 피를 말리는 용기가 필요했다. 이주형 씨는 학창 시절 내내 지독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통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유포되었다는 기억이었다. 그 때문인지 그는 대학 1학년 때까지 여행을 가서도 얼굴이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그에게 카메라 렌즈는 공포이자 혐오 그 자체였다.

트라우마가 늘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억지로 상처를 치료하려 애쓰는 대신 함께 걸어가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마음의 항아리에 든 구정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부어서 희석시키는 것.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영상의 비율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영상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려버리자는 집착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집착으로 그는 지난 5년간 3,000개가 넘는 영상을 쏟아냈다. 화면 속의 진짜 주인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라, 당당하게 군산을 외치는 ‘주브로’ 자신임을 증명해 낸 것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마주한 이름, ‘주브로’]

사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6월만 해도, 그는 군산을 영원히 떠나려 했던 이방인이었다. 영상과 마케팅 언저리에서 10년 가까이 방황하며 닥네임만 12번을 바꿨다. 남은 월세 계약은 딱 3개월. ‘이제 미련 없이 고향으로 가자’ 마음먹었을 때, 문득 억울함이 밀려왔다. 내 가치 하나 이 도시에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쳤다. 본명 ‘이주형’을 위트 있게 풀어낸 ‘ju.broe’ 라는 이름을 걸고, 그동안 등한시했던 군산의 진짜 골목들을 걷기 시작했다.

[빚 600만 원으로 시작해, 단단한 자부심이 되기까지]

역설적이게도 그가 선택한 콘텐츠는 오랜 다이어트로 인해 결핍이자 두려움이었던 '음식'이었다. 초창기 3개월 동안 그는 단 한 건의 광고도 받지 않고, 청년 대출로 받은 600만 원의 빚으로 군산 곳곳의 가게를 소개했다.

편견 없이 프랜차이즈와 노포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톡톡 찍어 올린 1분 미만의 영상들. “돈 받고 올려주냐”는 차가운 악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제 돈을 내며 세 달간 200여개의 영상을 올렸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 첫 영상을 올린 지 단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팔로워 1만 명이 모였고,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상회했다. 결핍의 끝에서 폭발한 에너지가 대중의 취향과 단단히 맞물린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의 진짜 진심이 쌓이자, 비로소 수백 건의 광고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광고 단가는 로컬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금액이다. 하지만 그는 이 금액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자, 좋은 가게를 걸러내는 투명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책정할수록, 내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다가오기 쉽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니, 오히려 자신의 음식에 진짜 자부심이 있는 사장님들만 연락을 주시죠. 저는 제 색깔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이드라인 제안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수백 건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었던

비결이자 자부심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도 이 자부심에서 나왔다. 얼마 전, 학창 시절 그를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가 카페를 차렸다고 광고 문의를 해왔다. 그는 잘 지낸다는 답변과 함께, 자신의 광고 단가를 정확히 두 배로 올려 제안서를 보내버렸다. 굳이 어떤 말을 보탬 필요도 없었다.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내 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 없어야 비로소 보이는 군산의 보석들]

주브로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군산’이라는 도시 자체로 향하고 있다. 그는 푸릇푸릇한 군산의 사계를 포착하기 위해 매일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차가 없어요. 일부러 안 삽니다. 차를 타고 뺑 지나가 버리면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보석 같은 가게나 자연의 표정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땀을 흘리며 다녀야만 진짜 군산의 숨결이 보여요. 같은 공간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늘 보던 한 곳만 봐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속도에 맞춰 큰길로만 질주하다 보면, 정작 ‘나’라는 존재가 가진 고유한 무늬를 놓치기 쉽다. 내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시선을 돌려줄 때, 내 안의 보석 같은 가치도 비로소 반짝이기 시작하는 법이다.





["제발, 남 말고 나를 존중하세요"]

주브로의 거침없는 질주 뒤에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필터가 존재한다. 그는 최고의 조언이란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공유해 주는 것이라 말한다. 'RED 오션이다, 안 된다'라며 타인이 그어놓은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망설이는 이들에게 특유의 직설적이

면서도 명쾌한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시도할 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돈도 따라옵니다. 이미 벌어진 실패나 안 좋은 일조차도 내 과거로 인정하고 발판 삼는 게 '셀프 존중'의 시작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주브로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익숙했던 군산의 거리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치부했던 벽면의 질감과 무심히 지나쳤던 골목의 그림자가 생경하게 다가온다.

결국 '힙(Hip)'하다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것을 쫓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애정 어린 시선' 그 자체였다. 군산이라는 도시는 주브로라는 렌즈를 통해 오늘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다.

내일의 군산은 또 어떤 색으로 그의 피드에 기록될까.

우리가 그의 다음 게시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유다.

익숙함에 속아 내가 발 딛고 있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진 않았을까. 오늘 퇴근 길에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늘 건넌 골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주브로가 발견한 군산처럼, 당신의 동네도 생각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스타그램 @ju_broe

독립영화 《저만치 가까이》가 남긴 깊은 여운

글 | 정미란
jmr6114@hanmail.net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은 이제 세계 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K-컬처 열풍은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영화로 이어졌고 천만 관객을 넘는 작품들이 연일 화제를 만든다.
화려한 볼거리와 자본이 집중된 상업영화 사이에서,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작품들은 조용히 관객을 찾아오는 독립영화일 때가 있다.
최근 전주의 독립영화관에서 만난 영화 역시 그런 작품이었다.



영화 《저만치 가까이》

극단 <집현>의 대표이자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최경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백학기 감독의 신작 독립영화다.

군산 여고를 졸업한 군산 출신의 최경희 배우는 연출가인 남편 이상희와 25년 넘게 서울 경기지역의 연극 무대를 지켜오고 있다. 연기뿐 아니라 춤과 노래, 의상제작과 연극제 심사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잘 알려진 여성 예술인이다.

지난해부터 후배의 출연 소식을 들으며 기다려온 영화의 정식 개봉에 앞서 특별 시사회로 먼저 만나게 되었다. 전주의 영화 제작소에 서 감상한 영화는 깊고 조용한 울림을 주며 가슴에 남았다.

비구니가 된 엄마를 찾아 길을 떠난 20대 여성 윤지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중년 여성 수연의 이야기를 백학기 감독은 담담하게 풀어낸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두 여인의 상처는 각자의 에피소드 속에서 교차하며 한 편의 연작처럼 이어진다.

최경희 배우는 극 중 상실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오십 대 여성 수연을 연기한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비구니 스님과의 선문답 같은 독백이 잔잔하게 다가온다. 특히 극 중 삽입된 시인 백석의 시구는 영화의 정서를 더욱 깊게 만든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쉴쉴한 낮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시어가 품고 있는 애잔함은 그대로 윤지의 마음이 되어 스크린 위에 내려앉는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끝내 달고 싶은 용서의 감정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다. 이어지는 수연의 서사는 더욱 먹먹하다. 세상과 만나지 못한 태아령들의 천도를 위해 놓인 빨간 모자의 아기불상 앞에서 터뜨리는 오열은 어떤 대사보다 깊은 슬픔으로 다가온다.

상실과 모성의 아픔을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해 낸 최경희 배우의 연기는 강한 몰입감을 만든다. 만나지 못한 존재를 향한 미처 다 건네지 못한 마음들이 관객의 눈물과 조용히 맞닿는다. 영화 속 스님이 건네는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때로는 볼 수 없음이 또 다른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사는 결국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독백처럼 다가온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긴 시간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실처럼 이어지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어떤 인연은 함께 완성되지만 어떤 인연은 끝내 만나지 못한 채 흔적으로만 남는다.

영화《저만치 가까이》는 상처를 단순히 치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상처 또한 삶의 일부로 우리 안에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조용히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영화는 두 여성의 이야기인 동시에 관객 각자의 기억과 상처를 돌아보게 만드는 한 편의 고백처럼 느껴진다.

영화의 공간 또한 인상적이다.

전남 보성의 대원사와 전북 진안의 마이산 탐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 내리는 산사의 풍경은 두 여인의 슬픔을 묵묵히 품어 안는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은 마치 또 하나의 주인공처럼 영화 전체를 감싸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만든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시처럼 남는 대사들과 독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관객의 아쉬운 여운을 이어가듯 영화와 함께 출간된 책 《저만치 가까이 SO FAR SO NEAR》역시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전주가 고향인 백학기 감독은 한국문학상을 수상한 등단작가로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며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영화 속 대사와 자신의 철학을 한 권의 책 안에 담아내며 또 다른 방식의 사유를 건넨다.



백 감독은 인터뷰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억지로 정리하기보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영화를 통해 그런 시간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저만치 가까이》는 관객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의 기억과 상처를 바라보게 만드는 영화다.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의 기억을 오래도록 두드리는 작품이었다.



시사회 일정

-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4월 16일
- 군산 롯데시네마 4월 17일
- 서울 충무로 서울 영화센터 5월 28일
- 인천 5월 30일

지친 새들이 쉬어가는 서해의 푸른섬 어청도(於靑島)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지회장 유기택)에서는 지난 5월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어청도 답사 행사를 가졌다. 전체 회원 중 28명(남19, 여9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어청도의 조류 및 생태 현황을 탐방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동탄, 전주, 광주 등 외지에서도 회원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군산 소룡동 여객터미널에서 아침 9시, 쾌청한 날씨 속 약 15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은 정확히 2시간만에 어청도에 도착했다. 소수의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낭과 함께 저마다 망원렌즈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어 어청도가 조류 관찰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다. 지회에서는 일단 예약된 민박집에 짐을 풀고 점심 식사후 저마다 자유롭게 섬을 둘러 보았다. 고군산군도에 딸린 섬으로 군산항에서 뱃길 72km거리의 어청도는 면적 약 2km², 해안선 길이 11km의 섬으로 천 연적 항구로서의 입지조건에 근대문화유산인 어청도 등대와 치동묘, 봉수대 등이 볼거리로 알려진다.

어청도의 기원

BC 2세기 경 중국의 한고조가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자 초나라 재상이었던 전횡(田橫)은 목숨 부지를 위해 군사 500여 명을 이끌고 하염없는 망명 바닷길에 올랐다. 돛단배로 망망대해 서해를 무작정 표류하던 전횡은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우뚝 나타난 섬 하나를 발견, 그 섬이 너무 푸르려 어청도라 명명하고 정착함으로써 발전(田)씨의 시조가 되었고 지금도 마을 한가운데 그를 기리는 사당 치동묘(淄東廟)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충남 보령군 오천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전라북도 옥구군 관할로 이관되었고, 1995년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면서 군산시에 속하게 된 어청도는 어업이 전성기였던 1970~80년대만 해도 한 집 건너 술집과 다방이

성업을 이루었다 하며 이에 종사하는 여성만도 100여명이 넘을 정도였고 들락거리는 어부만도 천여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풍요가 넘치던 곳이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이후 어업 전반이 쇠락한 상태에서 많은 주민이 섬을 떠난 현재는 약 85가구에 120여명의 주민이 별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고 있다.

민박집에 분산된 지회 회원들은 조류, 식물, 동물·곤충, 고양이(피해포함), 염생식물, 갯벌생물 등 관심 분야별로 팀을 나눠 탐방 시간을 가졌는데 이 중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다. 러시아,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조류와, 반대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조류의 중간 기착지로서 머나먼 여행으로 인해 지친 상태가 된 그 새들을 섬에 번식한 야생 고양이가들이 포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은 서식 조류 현황과 더불어 마을의 고양이 현황도 함께 조사했다.



어청도 등대



어청도항 전경



치동묘

자신을 나그네새로 지칭한 한 회원의 조사에 의하면 동측 해안 데크 길에 지바퀴류, 솔새류, 유리새류, 황금새, 물총새, 주홍가슴을 비롯하여 회색머리딱새, 붉은가슴올새, 큰점지바퀴, 검은지바퀴, 개미잡이 등이 발견되고, 교회 주변에서는 주홍가슴과 한국동박새 등이, 수로에서는 할미새류와 검은머리 등이 보였고, 또한 폐교된 초등학교에서는 측

새류, 지바퀴류, 찌르레기류, 종다리류, 유리새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웅달섬 부근에서는 측새, 유리딱새, 해오라기, 흰눈썹올새, 도요새 등이, 서측 쓰레기장에서는 딱새류, 솔새류, 종다리류, 바다직박구리, 할미새, 검은딱새 암수 등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었다.

회원들은 저마다 관심 조류의 서식지를 찾아다니며 분주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특히 희귀종이거나 자신이 찾는 새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대부분 학술적 전공이 아닌 평범해 보이는 회원들이지만 새에 관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조류 덕후들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회원 중 서천국립생태원 연구원인 이상훈 박사의 기후 위기 관련 강의(어청도교회)에는 회원들과 주민 및 방문객들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여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높아진 해수면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구상 대부분 육지가 물에 잠긴다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였다.



여객터미널앞에서의 회원들. 사진 오른쪽 유키택 지회장



연리지향나무(어청도초등학교)



이상훈 박사의 기후위기 강연(어청도교회)



마을에 걸린 풍력발전 지정 환영 플래카드

마을 도처에 걸린 현수막엔 어청도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약 10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25억 원, 20년간 약 4천500억 원의 재원 확보가 예상되는 한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기본지원금(매년 2억6천만 원)과 특별지원금(1천650억 원) 등이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가급적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효상 이장은 마을 특성화자금 50억원도 예정되어 있어 이의 용도를 놓고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말도 들려준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청도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쓰레기 문제인데 해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주민 전체 쓰레기 양보다 많다 하며 이것을 모두 한군데 쌓아두었다가 연 1회 바지선이 와서 싣고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된 쓰레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약 50톤이 쌓인 쓰레기장에 화재가 발생, 헬기로도 진화가 안 되어 해경 소방정이 출동, 진화한 일도 있다고 들려준다.



갯벌 탐사 중인 회원들



이효상 이장



생태 조사단



조류 관찰 중인 회원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주민들에게 해상풍력은 분명 일정 부분 소득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생태적 관점에서는 일부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풍력발전기가 건설되면 새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의 섬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더 나은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마을 안에 새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현재 폐교 상태인 여청도초등학교를 생태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천혜적 자연환경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살아 숨쉬는 생태의 보고(寶庫) 여청도, 그리고 그것을 탐방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찾는 이 섬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소득을 추구하는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조류보호협회는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산하 기구로 천연기념물을 보존하는 일에 모든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천연발효 빵에 내 인생을 건다, 정나울씨의 '팡모들러베이커리' 이야기

글 | 채명룡(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어떤 게 건강한 빵일까.

건강과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 요즘 '베이커리' 상호를 단 매장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웬만한 빵이나 제과로 창업했다가는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다. 살찌는 음식, 혹은 간식으로 베이커리의 상품들을 지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 발효된 반죽으로 만든 제품들은 더부룩하거나 헛배가 부르지 않고 소화가 잘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유산균 발효종을 이용한 빵들의 경우 살과의 전쟁에서 살짝 앞서 있다.

30대의 정나울 씨가 '반생'을 건 도전 끝에 건강빵을 내놓고 있는 미장동 '팡모들러 베이커리'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 프랑스어 ‘팡=빵’, ‘모듈러=만들다’ 합성 상호 ‘팡모들러’

식당과 아르바이트 등등 시간을 쪼개 써왔으나, 청춘을 갓 벗어난 정나을 씨에게 성공은 저 먼 나라 이야기였다.

2년여 만에 수송동 한라비발디 근처 가게를 접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 그런데 그녀는 왠지 담담해졌다.

“저는 ‘천연발효 빵’을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냉엄하더라고요.”

빵 만드는 기초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제빵의 벽은 높았으며,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기초부터 속성으로 배우려는 그 자체가 ‘맨바닥에 헤딩’하는 꼴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한눈팔 틈이 없었다. 도전을 결정하자 이쪽저쪽 고민하지 않았다.

세상의 일이란 참 묘했다. 직진하자 길이 열렸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 이어졌다.

청춘을 갓 벗어난 나을씨가 ‘유산균 천연발효 빵’을 만나고, 프랑스어 ‘팡=빵’에 ‘모듈러=만들다’를 합성한 상호 ‘팡모들러’가



만들어졌다.

◆ 2025년 2월 창업, ‘팡모들러’ 조용히 입소문

미장초 옆 파출소(수송지구대) 건너편 1층의 알콩달콩한 매장 ‘팡모들러’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연 건 지난 2025년 2월이다. 속성으로라도 배워야 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다.

“국내의 유명 베이커리를 찾아가니 ‘내 레시피를 배우는 데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랬죠. 결국 전 재산을 털어 넣고 그 제빵인과 계약을 썼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자 담담해졌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이 길이 아니라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년여 동안 창업을 하면서 부족한 공부를 했고, 또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반복했다.

지금도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새로운 분야의 스승을 찾아 배우고 익혀 나가고 있다.

◆ 천연유산균 발효종을 이용한 빵

‘팡모들러’ 매장에서는 ‘그날 만든 빵은 그날 판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효종을 사용해 14시간 저온 숙성한 뒤 유기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는 빵을 만드는 나울 씨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른 분들의 눈에는 한가한 가게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 빵업이란 게 하면 할수록 중노동이에요. 조금도 게으르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치즈 올리브 식빵, 하트 샌드위치, 무화과 감바뉴, 통밀팔 감바뉴, 피스타치오 바게트……

정 대표는 새벽 5시경 출근한다. 반죽 등 기본적인 일을 해주는 직원 은 더 일찍 매장에 나와 있다.

식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오전 9시경부터다. 모든 빵이 매장에 진열되려면 오전 11시가 넘어야 한다. 오후 1~2시가 지나면 다음 날 만들 빵의 반죽이 시작된다.

오늘도 이 가게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숨이 가쁘다.



치즈 올리브 식빵 (6.2)



무화과 통밀 감바뉴 (6.7)



통밀 팔 감바뉴 (6.7)



초코 바게트 (6.7)



◆ 단짠단짠(달고 짜고 맵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드리는 선물

이 가게는 빵을 먹으면서 수다 떠는 일반 빵집의 개념과 다르다.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는 형태이다.

“건강한 빵이 모두의 입맛에 맞을 리가 없거든요. 때로는 ‘맛없다’고 툴툴거리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담백하고 심심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아 좋다는 분들이 손님의 70%는 되지 않을까요?”



◆ 살짝 쿡쿡한 건강빵, 아침마다 줄 서는 진풍경

살짝 쿡쿡하고, 살짝 밍밍하고, 살짝 거슬리는 맛. 그것이 바로 유산균 발효종 빵의 본모습이다.

반생을 건 도전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정 대표. 진심은 통하는 법, 아침마다 줄 서서 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졌다.

“아침 일찍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12시간 이상 숙성시킨 반죽을 만지고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승님을 찾아가 공부하면서요.”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열심

단짠단짠(달고 짜고 맵고...)에 익숙한 현대인의 입맛에 심심한 빵이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다.

이에 불구하고 나옴씨는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건강빵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었으나 지금은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빵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제가 유산균으로 만든 제 빵은 덤석덤석 물고 있잖아요.(하하)”



히 배우고 있다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 단잠에 빠진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가게에 나오는 정나울 대표.

그녀의 진심이 빵에 배어 나오길 빈다.

‘팡모들러베이커리’
군산시 미장안2길 12.(수송지구대 길 건너)
주문 0507-1466-6715
(매주 일요일 휴무)



(사)한국영화인협회 군산지부 창립 “군산만의 색깔로 영화 브랜드를 만들자”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Ready Action!

2026년 4월 19일! 4·19혁명의 66주년 역사 정신을 기리는 날, 군산의 영화예술인들이 모였다. 이날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군산지부(이하 지부)가 세상에 나오는 생일이었고 축하를 나누는 날이었다. 회현면 구울 문화마을 ‘스튜디오 Z’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 지부는 임복근 지부장을 중심으로 3년 동안 군산의 영화 발전을 위한 시민과 예술인들의 관심과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6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군산지부로 출발했으나 연합회의 파산선고 및 재등록과 군산지부의 파행적 운영 등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산고 끝에 새롭게 탄생한 지부의 첫 출발을 따라가 보자. 레디 ~ 액션!



지부 창립 목적과 사업은?

‘지역 영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여 영화예술 및 영상미디어 문화의 창작, 보급과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영화예술 문화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복근 지부장이 지부의 창립 목적을 선언했다.

임복근 지부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군산 영화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창작은 자유롭게 · 지원은 공정하게 · 운영은 투명하게!”를 강조했다. 또한 “군산의 영화를 포함한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성원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영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생태계 구축과 이를 위한 예술행정의 중요성을 짚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 지부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지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1. 영화예술인의 창작력 향상 및 재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활용
2. 지역 영화제 신설 추진
3. 영화 해설사 인증 제도 추진
4. 영화예술의 학술 연구 및 제반 자료수집
5. 지역 영상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6. 영화,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발 제작
7. 지역 영화 촬영 장소, 포토존 및 게시대 설치 추진(시네마 로드 관광산업)
8. 청소년 영화제 신설 추진 등이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

나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더구나 군산의 영상문화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 선정과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

“영화는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예술이자 산업이다. 흥행에서 성공한 영화의 확장성과 파급력은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화도 예술적 울림, 문화적 파급효과 등 문화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예를 들 수 있다.” 이어 “이 지점에서 향후 군산시와 전라북도 등 관련 지자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천만 영화가 인구감소 지역을 흔들었다... 영월 방문 17%·소비 13% 급증-〈왕과 사는 남자〉 개봉 후 청령포지·단종장릉 입장객 전년 대비 640%·752% 급증함.’- 특히 수도권 영남권 등 원거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개봉 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어, 콘텐츠 흥행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방문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연구원, 자료 중 일부 인용]



창립대회

창립 과정은?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창립대회까지

먼저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군산지부는 2016년 6월 창립했다. 필자가 군산예총에 몸담고 있을 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영화에 뜻을 모았다. 군산과 서울을 몇 번씩이나 오가며 군산지부 등록 인준을 받았고 군산예총의 아홉 번째 (장르)지부가 탄생했다. 초대 지부장은故 오대섭 지부장이 선출됐다. 당시 군산예총의 한 단계 도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 지부장은 “창립 당시 참여했다. 사진작가 활동도 병행해서 하던 참이라 영상 촬영과 작업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합류한 것 같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군산에서 거의 올로케이션한 영화 ‘아메리카 타운-(전수일 감독)’ 공동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만들어갔다.”고 자신의 소회를 풀어냈다.

그러나 이후 지부 운영은 순탄치가 않았다. “초대 지부장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서둘러 차기 집행부가 꾸려졌다. 초대 지부장의 궐위된 잔여임기를 마친 당시 지부장이 2·3대 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 점점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지부 운영이 이어졌다. 결국 2025년 2월 19일 이후 총회와 이사회가 단 1회도 열리지 않고 지부는 활동 중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올해 초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지부장의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지며 시급하게 지부 이사로 구성된 ‘군산영화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 차원에서 지부 발기인 대

회와 창립대회까지 꾸준히 지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2024년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는 예전 임원들의 채무를 감동하지 못하고 공여지책으로 파산 선택 이후 (사)한국예총에서 일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금의 (사)한국영화인협회(양윤호 회장)로 재등록 인준을 받고 올해 2월 25일 한국예총에 다시 복귀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지부와 전북지회가 창립된 것이다.”라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창립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현재 진행 사업은?

“전북도지회 창립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나아리 지회장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 5월 23일 전주 세병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행사의 총기획을 맡았다. 올여름 개봉을 앞둔 ‘길 위의 뭉치(오성윤, 이준백 감독)’라는 작품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빛나는 성취’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며 “명필름 이은대표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주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길 위의 뭉치’는 반려동물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상영회가 될 것이라 영화마니아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해진다. 한국영상자료원과 명필름,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한다.

2026 찾아가는 영화관



2026 찾아가는 영화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창립대회를 마치고 중앙의 최종 등록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우리가 진행해왔던 모든 사항은 중앙 영협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결과이다. 그만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 제대로 시작해야, 과정이나 결과도 좋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선 지방선거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앞서 소개한 사업계획들을 정리하여 예총과 군산시, 전북도지회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조할 사항들이 많다. 다시 한번 각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특히 영화(영상)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그리고 군산만의 주제와 색깔을 가진 영화제를 꼭 만들고 싶다. 최근에는 영화제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관객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오래전에 ‘금강역사영화제’가 군산과 서천을 오가며 개최됐으나 언젠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얼마 전에 ‘제1회 부여 히스토리 국제영화제’가 열렸다.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의미 있고 준비가 잘된 영화제라고 전해들었다.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군산에서도 우리가 직접 만드는 영화제를 꼭 만들고 싶다. 군산을 알리는 큰 축제가 될 것이다.”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군산 영화지부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사)한국영화인협회 군산지부

군산시 회현면 구울2길 19 스튜디오 Z

010-3658-0724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웃음꽃 피어나는 경로당 이야기
‘라온이음’ 손미자의 인문 교실

글 | 채명룡(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라온이음 회장 손미자 시인

시간이 멈추어버린 도심 한 편, 경로당은 늘 그대로의 모습이다.

구석에는 아무렇게 나동그라진 인생들이 쓰러져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냥 그렇게 무심하고 무감하게 흘러가는 말년 인생의 모습이다.

누군들 빛나는 한때가 없었을까.

그렇고 그런 인생, 무의미하게 인생 종점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노인들에게 화투 대신 인생을 돌아보는 인문 교실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화투가 아닌 ‘화락(和樂)’으로 피어나는 경로당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라온이음(회장 손미자)’의 사업 수행 현장 모습이다.

할머니들이 화투의 무심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운동 주공 4차 대성 경로당 어르신에게 삶의 의미 찾아주려는 의미 있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나이 일흔을 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동네 할머니들의 참새방 앓간은 다름 아닌 경로당이거든요.”

그러나 경로당의 일이란 화투와 TV보기이다. 말하자면 ‘시간 보내기’, 혹은 ‘시간 죽이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의미한 삶을 이어갈 뿐이다.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주공 4차 대성 경로당. 경로당 회원 할머니 12명이 모였다.

“화투 대신 ‘화락(和樂)’으로 피어나는 경로당 이야기”를 주제로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온이음’은 ‘경로당, 마을, 생활 공간,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예술이 삶과 멀어지지 않고 지역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목표로 뜻을 같이하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손미자 회장(시인, 군산문인협회)이 나섰다. 화투의

무심함에서 할머니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시험대가 마련되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놀이’도 기술이다. 생각 없음, 혹은 무심함은 나와 나의 문제만이 아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변화시키거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자체를 거부하여 온 게 바로 고령 세대들의 자화상이다.

놀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먹고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왔던 70~80세를 넘긴 세대들에게 있어서 천형과도 같은 현주소다. 어느 한 지역, 특정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다.

‘재밌게 놀기’를 배우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이전, 너무나 각박한 인생을 살아왔던 원로 세대들에게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주려는 시도는 신선하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모여 자기 삶과 기억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이 사업은 올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5회 이어진다.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왔던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찾는 인문 교실

프로그램 수업 현장



그림책 스토리텔링 사업



“화투 대신 ‘화락(和樂)’으로 피어나는 경로당 이야기”

나운동 주공 4단지 서민 공공임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고,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찾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며, 스스로 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걸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매주 토요일의 “화투 대신 ‘화락(和樂)’으로 피어나는 경로당 이야기”의 모습이다. 손미자 강사는 “4계절을 체험하듯, 인생에도 4계절의 서사 구조를 적용해 봄(탄생/희망/젊음), 여름(열정/고생), 가을(결실/성찰), 겨울(나눔/인식)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온 이음 봉사활동



손미자 시인

‘나도 할 수 있다’

소외되기 쉬운 고령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직접 찾아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이야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기획된 게 이 사업이다.

대성 경로당은 70대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공동체.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화투 놀이와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도 다르지 않았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기 삶과 기억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산 주체로 성장

할 수 있을까?

경로당 안에 존재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결핍을 드러내고 ‘나도 할 수 있다’로 귀결되게 만드는 문화운동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라온 이음』의 ‘라온’은 순우리말로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인문문화예술연구회 ‘라온이음’은 20여명의 회원(회장 손미자)들이 경로당, 마을, 생활 공간,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이 삶과 멀어지지 않고 지역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지만 큰, 동네책방 '봄날의 산책' 박모니카 대표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박모니카 대표

4년 전인 2022년 3월, 군산시 근대역사거리 신흥동 말랭이마을 꼭대기에 책방이 들어섰다. 면적이래야 단 3평 남짓, 그러니 책이 많을 리 없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장인 책방지기 박모니카는 이곳을 거점으로 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2025. 12월까지 말랭이마을을 문화마을로 가꾸는데 발 벗고 나서면서 2022년 7월 독립출판사 '봄날의 산책'을 설립, 등단을 꿈꾸는 예비 지역 작가들의 출간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활동으로 인문적 지식과 감성을 풍요롭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봄날의 산책'에서는 현재까지 총 20여 권의 독립출판물을 등록했으며 지역 작가들의 출간회를 통하여 작가로서의 자긍심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올해 출판 예정만 해도 5종(시집, 에세이집)이 결정된 가운데 마을 입주 작가로서 4년에 걸쳐 군산시간여행축제 및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등 다양한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우리 시(詩)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 필사, 시 낭송, 시 창작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
- 책방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내는 '봄빛으로 오는 아침편지'를 매일 발송 (5년째인 현재까지 1,500여 통 상회)
- 지역 작가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지역작가 초대마당' 상시 개최
- 외부 유명 작가 특강으로 지역민과의 문화적 교류 확대
-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와 독서를 연결하는 특별한 문화의 장 선도
- 2025년 제1회 '디카시(詩) 공모전' 개최, (2026년 공모전 준비 중)
- 문화 영역을 확장한 '군산인문학당' 출범(2025.10월, 현재

정회원 50여 명

- 근대역사거리의 침체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와 시민의 연합 및 지성적 문화공간 역할 차원에서 '구영1길 프리마켓'을 개최, 월1회 정기적 오픈(2026.4월 시작)

군산인문학당

지난해 12월 출범한 '봄날의 산책 인문학당'(이하'학당')은 문화예술의 보편적, 대중적 영향력을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문과 자연의 균형과 상생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문학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인문적 활동이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고 회원들 간의 섬김과 배려가 중심이 되기를 목적으로 한다.



학당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활동을 표방한 가운데 각종 인문학 행사 개최(작가 초청, 인문학 세미나, 문학기행, 문학 공모전 등), 회원의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 및 출판, 홍보, 전시를 협조하며 회원의 능력 개발과 대중과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지도사 교육과정은 독서 논술 지도사, 글쓰기 지도사, 책 놀이 지도사, 책 만들기 지도사, 시 낭송 지도사가 있으며, 시(詩)교육과정으로는 시 짓기, 시 낭송, 시 노래, 시 그림, 시화 엮서 등이, 그리고 글 창작 교육과정으로는 시와 에세이 반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독서 활동, 창제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예·문화 활동에 주력하는 등 지역의 문학 인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문학당 동아리의 주요 활동으로는 시(詩)필사팀, 디카시 창작팀, 에세이 글쓰기팀, 영어 회화팀, 펜화 그리기팀, 가야금 연주팀, 캘리그래픽팀, 뉴스기자팀이 있으며 사진 에세이 창작팀과 인문 독서팀은 향후 개설 예정이다.

2026년도 현재까지의 군산작가 초대마당, 외부작가(시인)특강, 좋은사람책시리즈, 동아리활동 등을 범주로 한 월별 인문 활동 내역을 보면,

1월 : 군산작가초대마당1 (이순화 시인과 편성희 에세이스트)

2월 : 김사인 시인과 우리 시 깊이 읽기(김소월, 정지용, 김영랑, 이육사),
좋은사람 책 시리즈1 / '우아한 제로웨이스트 도전여행기' 신혜정 작가

3월 : 좋은사람 책 시리즈2 / '꽃천사 기부천사' 박선희 작가

4월 : 군산작가 초대마당2 / 이경아 시인, 강리원 시인(4.16)

4월 역사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 시낭송 / 한국시낭송예술원 채영숙 회장 외(4.11)

근대 시인 김영랑 기행 / 전주 한옥마을(4.18)

군산인문학당 봄 문화여행 / 고창 책마을(4.25)

5월 : 좋은 사람 책 시리즈3 / 불멸의 영미 산책 (이종민 교수(5.3))

외부 작가 특강 / 시와 에세이는 한 몸이다(천세진 작가(날짜 미정))

6월 : 좋은 사람 책 시리즈4 / 아름다운 갯벌 수라 체험(오동필 단장 (6.13))

7월 : 외부 작가 특강 / 인문 고전 '논어를 듣다' (진성수 교수(날짜 미정))로 계획되어 있다.





프리마켓 책 판매 중인 김은경 북매니저(빨간옷)

지난해 12월 초 '봄날의 산책'은 말랭이마을을 떠나 초원 사진관 부근 단독주택을 구입, 거실 전체를 책방으로 꾸몄다. 이주 후 박 대표는 주변의 상가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 진짜 동네사람이 되고 싶어 그 일환으로 프리마켓을 기획했다. 벚꽃이 만발한 4월초, 책방이 소재한 구영1길 상가길을 가칭 아~영 구~영길로 명명한 그녀는 주변의 기존 상가 5곳과 외부 희망자 5곳이 동참함으로써 장을 열었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시낭송예술원 군산지부(회장 채영숙)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동참, 4.3제주항쟁과 4.16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를 낭송했다. 프리마켓의 기획 의도는 골목 상권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아쉽게도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박 대표는 그날 판매한 책의 수익금 전액을 제주 4.3사건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단체에 기부했다.



박모니카와 채영숙 회장



야생화 강의 박선희 강사

첫 경험이었지만 박 대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이 주도한 프리마켓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사를 넘어 내가 살고 있는 '골목의 브랜드화'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연계되는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느낀 것인데 가장 큰 장점은 이웃 간의 결속력과 커뮤니티 강화, 그리고 공동체에 빛을 주는 전체의 힘이었다.

책방은 정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나 편히 들 수 있는 문화적 명소가 작용하고 있다.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누구나 차 한잔 나누며 격의 없는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3월에 있었던 야생화 관련 강의 시에는 좁은 실내를 약 50여 명이 꽉 채울 정도로 인기였다. 수십 개에 달하는 이날의 객석 의자는 모 회원이 전량 기부했다 하고 호박죽을 후원한 회원도 있어 시중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강의 끝난 후 박선희 강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꽃화분 하나씩을 선물하여 수강자들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앞으로의 인문학 강의에도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참석자 모두의 손을 잡고 일일이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봄날의 산책'

군산시 구영1길65(금동)
박모니카 010-3650-1878

‘골프 꿈나무를 돕는 대회’, ‘군산 경제를 살리는 대회’

제8회 군산골프대회, 39팀 156명의 남·여 선수 참여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8회째를 맞은 군산골프대회는 10년을 바라보는 연륜만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대회로 군산 지역사회에 각인됐다. 우선 스트로크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선수급 골퍼들의 참여는 줄었으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돌아가는 신페리어 방식의 환산 점수를 적용한 시상 결과가 알려지면서 중급자 위주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최상순 대회장(정다운병원 병원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회, 동호인들의 저변을 넓히면서 군산 경제를 생각하는 대회,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는 대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승일 본지 회장 또한 “오늘 출전한 선수들 역시 어수선한 지방선거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숙명을 지고 있다.”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 모두 행복한 하루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본지 운영위원장은 패셔니스타 시상을 하면서 “파란 잔디는 원색의 옷들과 잘 어울리는 화폭과 같다.”면서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주변을 돌보는 좋은 그림을 그려 나가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했다.

시상식에 앞서 주최 측에서는 군산골프대회에 힘을 보탠 소상공인골프회의 이수진 총무와 군산CC의 문병도 경기팀장에게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또한 본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윤구 위원(티엘특수물류 대표), 김상중 위원(농심 군산대리점)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매너상' 강명수, 박현주 선수



'섬섬상' 3위 김병수 선수



'섬섬상' 3위 유수정 선수



'양파상', 머리올리러 출전한 조수진 선수



'아차차상' 스트로크 1위 오광선, 김정은 선수



이날 박상배 새만금메세나협회 회장과 김동구 도의원이 참석해 덕담을 건넸으며,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 회원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옥구농협에서 협찬한 고품질 쌀을 서군산무료급식소에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고3으로 올해 꿈나무를 졸업하는 이윤지 학생은 "골프를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꾸준히 골프와 함께 군산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역 사랑의 말을 전했다.

스트로크 1위 남녀 선수에게 '아차차상'을 마련해 위로한 것도 관

심을 받았다.

또한 속칭 '머리 올리러' 대회에 참가해 무려 12개의 '양파'를 낸 조 수수는 주치 측이 내년에도 보자는 의미로 '양파상'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 그리고 군산CC 관계자들, 대회 운영진과 스태프들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였다.

(기사/새군산신문 제공)

활짝 열린 군산CC의 하늘, 자유 만끽한 골프 동호인들

스트로크 중위권 성적, 신페리어 방식 우승 ‘이번 연출’

군산항 하역회사 대표·임원들 대거 참여 ‘눈길’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치열했던 선거가 지나고 열린 ‘군산골프대회’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군산시민들의 감성 지대를 활짝 열어젖힌 대회로 기록되었다. 대회에는 지역의 경제인, 특히 이동원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김기운 GCT 대표, 김장우 7부두운영(주) 대표, 군장 신항만 류성환 대표, 서영훈 한솔CNS지점장, 최원일 (주)동방 지사장, 한동철 (주)제법 대표, 김시진 (주)선광 지사장 등 군산항 하역회사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골프 동호인들이 모여 ‘군산경제 파이팅’을 외치면서 ‘골프 꿈나무를 돕는 대회’, ‘군산 경제를 살리는 대회’로 이어지길 염원했다.

올해 꿈나무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이윤지 학생이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2026 군산골프대회’는 새군산신문(주) 주최, 군산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지난 11일 2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CC 부안·남원 코스에서 열렸다.

패셔니스트상, 포토제닉상 등 선수들의 참여에 방점을 둔 운영으로 호응을 끌어냈다.



채명룡 새군산신문 발행인 인사



대회 만찬장의 모습



박상배 새만금메세나협회 회장의 축사

여성라이온스클럽(이현주 회장)의 대거 참여와 함께 동호인 그룹들의 참여는 물론 가족 단위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우선 향만 하역회사 대표들이 단체 참여하였으며, 군산시복싱협회(이윤옥회장)의 임원진과 회장 가족, 군산복싱체육관 김형욱 관장팀, 소산회(소룡·산복동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임), 골미남팀, 군경총 24기(송은미 회장), 싱글빙글 클럽(안광군 회장), 빠리회, 소상공인골프회(이용목 회장), 박용배골프아카데미, 군장대CEO특별과정(박금옥 회장), ㈜중일 가족, 박대중합건설 가족, 친구 모임, 부안의 아주산업팀, ㈜대창 가족, 군장대CEO산악회팀, 친구 모임 등이 줄을 이었다.

본지 운영위원들도 함께했다. 김민재 운영위원장팀, 본지 강권모 부사장의 가족팀, 유병환 가족, 유병갑, 박동호 위원팀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 선수와 초청 선수 합쳐 모두 156명이 참여하

였으며, 남성 골퍼 97명, 여성 골퍼 59명으로 나타났다.

대회를 밝게 이끌어가는 본지의 운영 취지에 맞게 여성 선수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다.

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상식에서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라는 본지의 대회 케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주최 측의 추산으로 약 3천만원 상당의 기념품, 상품과 경품이 마련되었으며, 줄잡아 3백점 이상이 추첨을 통하여 선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참석한 선수들은 ‘볼빅’ 골프우산과 이상당 빵, 양배추 추출 건강식품 ‘위안받다’ 셋트를 기본으로 받아갔다.

박금옥 군장대CEO 골프회장이 협찬한 100만원대 TV가 마지막 추첨으로 박용배아카데미팀으로 출전한 여성 선수의 손에 돌아갔다.

(기사/새군산신문 제공)

신페리어 방식의 환산 점수 적용, ‘이번 속출’

남자부 스트로크 27위 84타 유병환 선수 ‘우승’
여자부 스트로크 21위 93타 안태옥 선수 ‘우승’
신페리오의 진수, 0.2점차로 준우승과 3위 갈려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신페리어 방식으로 스코어를 환산하는 군산골프대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중급자들이 대거 시상에 오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신페리어 남자부의 경우 유병환 선수가 환산 점수 69.6타로 1위, 여자부에서는 안태옥 선수가 환산 점수 71.4타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준우승은 환산 점수 70.2타의 김장우 선수(군산항 7부두 운영주식회사 대표)와 환산 점수 72타의 김인선 선수로 정해졌다.

유병환 선수의 경우 스트로크 84타로 전체 27위에 그쳤으나, 신페리어 핸디캡 14.4점을 적용해 환산한 결과 1등을 기록한 것.

여성 우승자 안태옥 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스트로크 점수 93타로 전체 21위에 그쳤으나, 신페리어 환산 핸디캡이 21.6점이 되면서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여성 우승자 안태옥 씨의 경우 “믿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

할 정도로 이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어떤 입김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 경기 방식으로 점수를 낼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신페리어 방식만의 독특한 결과였다.

주최 측은 골프를 잘 치는 선수들만을 위한 경기에서 벗어나 동호인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서로 소통하는 친교의 장으로 만들려는 취지로 이 방식을 선택했다.

여자부의 경우 이번 중의 이번이 나왔다.

신페리어 3위 유수정 선수의 경우 스트로크 점수 101타로, 말하자면 ‘백순이’였다.

그런데 신페리어로 환산하자 결과가 달라졌다. 유수정 선수는 신페리어 환산 핸디캡 28.8로 환산 점수 72.2를 기록했다. 불과 0.2점 차로 준우승을 놓쳤다.

이처럼 신페리어 방식 대회의 묘미가 제대로 드러난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들의 환호와 탄식 속에 내년을 기약했다.

(기사/새군산신문 제공)



※신페리어 방식이란?

비공인 핸디캡을 가진 아마추어들이 함께 경기할 때 사용하는 핸디캡 산정 방식.

주최 측(본 대회인 경우 군산CC)이 18홀 중 12홀(숨김 홀)을 선정하며, 선수들은 어떤 홀이 숨김 홀인지 모른 채 경기를 한다.

선정된 12홀의 점수를 기준으로 핸디캡을 계산한 뒤 순위를 정한다.

핸디캡 계산=(숨김홀 타수합-36)×1.5×0.8

순타수 = 총타수(Gross Score) - 핸디캡, 순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다.

(예) 총 타수 92타, 숨김 홀 12홀 합계 50타의 경우.

핸디캡 계산 $(50-36) \times 1.5 \times 0.8 = 14 \times 1.5 \times 0.8 = 16.8$

순타수 계산 $92-16.8=75.2$, 신페리어 공식 기록 75.2타

결과적으로 신펜리어는 초보자와 고급자가 함께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경기 방식이다.

파란 잔디 위 원색의 패션 물결

여성 참가자 위주로 원색의 필드 패션 뽐내
패셔니스타 3명, 포토제닉상 2명 선정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필드 위의 멋쟁이, 패셔니스타 시상(김민재 위원장, 송은미, 박성숙, 박화영)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새군산신문사와 자매지 매거진군산은 참가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통해 패셔니스타상과 포토제닉상 선정 기준으로 “대회 참가자들이 셀프 사진을 찍어 주최 측에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보내면 심사해 결정한다.”라고 공지했고, 이를 심사에 반영했다. 선수단은 주최 측에 본인 혹은 단체의 패션 감각을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을 대거 보내왔으며, 대회 운영진은 심사에 심사를 거듭했다.



포토제닉상, 박효금, 최희주 선수



패셔니스타 도전-군경총 24기 팀



군경총24기 송은미 회장팀



패셔니스타 도전



패셔니스타 도전-박화영씨 팀



패셔니스타 도전-황중욱



패셔니스타 도전-김시진



패셔니스타 도전-(주)종일 강민호 가족팀

필드 위의 멋쟁이로 선정된 선수는 부안코스 4홀 첫 번째 조로 출발한 박성숙 씨가 먼저 뽑혔다. 동반자들의 참여가 돋보였으며, 생기발랄한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는 50대 중반의 친구들과 함께 출전한 부안코스 8홀 두 번째 조의 리더 박화영 씨가 선정됐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며 좋은 추억을 남기려는 시도와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사진 보내기 등 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세 번째는 부안코스 9번 홀 두 번째 조로 출발한 군경총 24기 팀의 리더격인 송은미 씨가 뽑혔다.

이 팀은 동반자들이 화려한 군무와 함께 필드 위에 원색의 물결을 수놓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운영진의 호

평을 받았다.

패셔니스타 3명에게는 '필드 위의 멋쟁이' 상패와 함께 필스토틀피부과의원에서 제공한 30만 원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필드를 누비며 좋은 매너를 보여주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골프 매너로 추천받은 최희주 씨와 박효금 씨를 포토제닉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박효금 씨(여성라이온스 차기 회장)에게는 PXG골프 30만 원 상품권이, 최희주 씨에게는 정다운병원 종합검진권(골드)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기사/새군산신문 제공)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기념품과 상품으로 가득 찬 제8회 군산골프대회
군산의 유명 업체 협찬으로 대회 빛나는 계기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대회 때마다 참가 선수들에게 ‘보따리’ 상품 제공으로 화제를 뿌려왔던 군산골프대회는 이번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대회를 준비해 온 새군산신문은 대회 캐치프레이즈의 하나를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로 정하고 경품을 협찬받기 위하여 많은 기업과 단체를 찾아 동참을 호소했다.

우선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볼빅’ 골프 우산으로 사전 제작해 제공하면서 기념품의 퀄리티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 명품 ‘이성당 빵(김현주 대표 협찬)’과 양배추 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네이버 쇼핑몰에서 약 2만 원대에 판매되는 건강 상품 ‘위안발다’(황해수육 이나라 대표 협찬)를 개인별로 1박스씩 제공했다.

군산의 주요 호텔들의 참여와 협찬도 눈에 띄었다.

우선 에이본호텔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졌다. 슈퍼리어 트윈 숙박권과 월명일식 식사권 등 줄잡아 3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협찬했다.

라마다군산호텔(이승우 회장)과 은파팰리스호텔(정성혁 대표)의 숙박권 협찬도 함께했다.

필스토리피부과의원(고영준 원장)이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을 협찬했으며, 파티마성형외과의원(조상건 원장)도 상품권을 보내왔다.

정다운병원과 동군산병원에서도 건강검진권을 협찬해 주었다. 지역 특산물의 협찬과 후원도 많았다. 아리울수산(박금옥 대표)에서 박대 세트, 내고향씨푸드(김철호 대표)와 쥬밥강도에서 꽃게장 세트, 선유도특산물판매장(정종국 대표)과 (유)영인바이오(최인정 대표)가 김 세트와 해물알탕 세트, 만연숯불갈비(최태호 대표)와 함양농협산삼(박찬우 대표)가 상품권과 건강식품 세트를, 동우팜투테이블에서 닭계탕 등 밀키트 세트를 보내왔다.

골프용품과 상품권도 답지했다. 클리프스 퍼터(박준서 대표), 군산CC의 연습장 쿠폰, 박용배골프아카데미의 연습장 이용권, 보스턴백(안광균 온누리도장건설 대표), 캐디백(강윤구 티엘특수물류 대표), PXG 상품권(최은성 군장대 CEO특별과정 총원우 회장), 세차권(박정환 세진렌터카 대표) 등 협찬품이 들어왔다. 또한 옥구농협에서는 서군산무료급식소에 후원해 달라며 쌀 10kg 15포대를 협찬했다.

협찬과 후원으로 대회를 빛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기사/새군산신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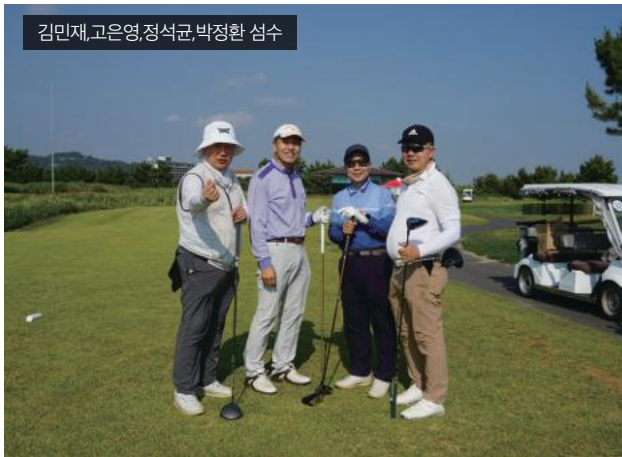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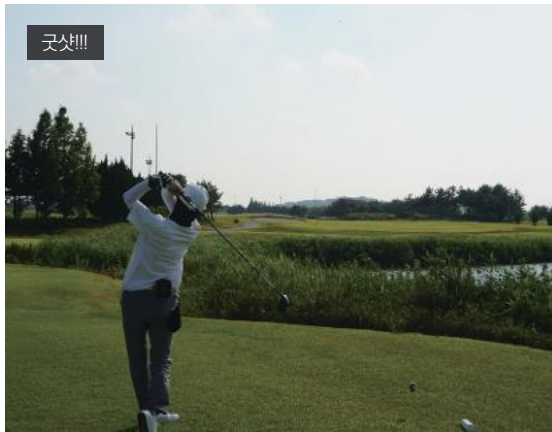
제8회 군산골프대회의 ‘이모저모’

다양한 참가자들, 멋진 스윙으로 하루 만끽
기업 단체들의 많은 협찬, 참가자들 경품으로
모범적인 여성 골퍼들, 포토제닉상 수상 위로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군산골프대회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모범적인 대회로 정평이 나 있다.
참가 선수들이 하루를 만끽하는 모습이 그대로 화보에 나왔다.





굿샷!!!



김상중 선수의 러프에서 샷



부안팀 이승철 선수



멋진 스윙, 양미화 선수



'들어가라...들어가라...' 최형복(행복상사)선수의 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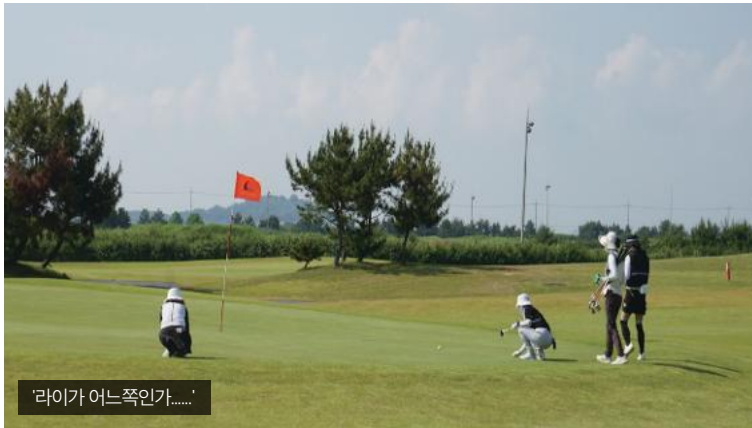


이기송(박대종합건설)선수의 파 퍼팅



아차 실수...4명 모두 보기 퍼팅





'라이가 어느쪽인가.....'



패셔니스트 도전-이재언팀



'아차차' 실수....한은주 선수



패셔니스트 도전-강영수



최희주 선수의 퍼팅



퍼팅은 신중하게



'파운'이라지만...4인4색이군요



이번에는 들어가자!!



롱롱 퍼팅이지만..준비하고~~쏘세요!!



원색의 필드 패션



홀컵을 살짝 뱉나갔군요..아깝다



멋지다



에이본 호텔 숙박권 추첨



에이본호텔 스웨아디너 이용권 추첨



에이본호텔 식음료권 추첨



에이본호텔 식음료권 추첨-2

바로크미술 대표화가 - 3.렘브란트 반 레인 “시민의 삶을 무대 중심으로 등장시킨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은 종교와 정치의 권위적 무거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일상과 시민 계층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그는 단순히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삶의 무게를 드러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인 극적인 연출과 사실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의 얼굴과 손만 밝게 비추는 기법은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인물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렇듯 강한 빛과 깊은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화면의 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이 기법을 ‘테네브리즘(Tenebrism)’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명암 표현을 넘어 긴장감, 신비감, 인간의 감정까지 강조하는 극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테네브리즘’은 바로크 시대 미술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이며, 특히 ‘카라바조’가 이 기법을 발전시켰고, 이후 ‘렘브란트’와 같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니콜라스푼스박사의 해부학 수업>



<야경(원제-프란스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

그의 대표작인 ‘야경’은 642년에 제작 하였다.

기존의 정적인 초상화와 달리 인물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한 역동적인 ‘대형 집단 초상화’이다.

종교화와 정치적 이익의 목적에 의해 그림이 그려지던 바로크 초기와는 달리 위 그림은 시민군 여럿이 댕가를 지불하고 주문해서 그려진 ‘집단 주문 그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웃지못할 해프닝이 전해진다.

극적 명암대비와 화법 때문에 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누군가는 어둠에 묻혀서 정작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로는 단체 초상화 의뢰가 줄었다는 후문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실재는 밤 풍경이 아니라고 한다.

유화위에 보존제로 바른 바니쉬가 오랜 세월 검게 변해서 야경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후 복원 작업을 통해 실제로는 밝은 장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렘브란트’ 그는 예술이 이 시대 권력의 사유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삶을 강한 명암 대비를 통해 ‘캔버스’라는 무대 올려서 조명을 비추는 방법으로 바로크의 미술을 빛나게 만든 거장 이었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문학과 사람과 함께, 마음 속 꽃길을 걷는 시간. 삶은 은유이고, 사람은 꽃입니다.

<오늘의 시>

〈눈물의 문장〉 / 김선순

말없이 고요하던 눈동자에서
붓물처럼 터져나온 눈물은
말로 건너지 못한 강이었다

입술 닿기 전 사라져버린
부서진 문장들의 무리였다

목 놓아 쓰는 마음의 비가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을 건너
조용히 써 내려간 끝없는 고백

그 고요한 물결 위에
아직 말하지 못한 내가 떠 있다

당신과 잇는 마음치유의 순간

우리는 때때로
말로 건너지 못하는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표현하려다 멈추고, 꺼내려다 삼키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이야기들.

“말로 건너지 못한 강”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건너보지 못한
내면의 경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눈물은 슬픔의 결과가 아니라
표현되지 못한 언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입술에 닿지 못한 문장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시치료의 관점에서 눈물은 억눌린 감정을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내면이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목 놓아 쓰는 마음의 비”는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의 언어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어떤 눈물의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어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안부시인 김선순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봄봄문학상담연구소 대표

메뉴가 많아야 성공한다? 대표 메뉴 하나로만 승부하라

코로나19가 성행하기 몇 해 전, 지인 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민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떡볶이를 주 메뉴로 승부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선 단일메뉴보단 다(多)메뉴가 인기가 좋아 어떤 음식을 같이 넣어 들어갈 것인가가 고민의 주된 것이었다. 이렇듯 음식은 어느 곳에서 창업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어떤 메뉴를 넣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메뉴 개발의 중요 지표다. 하지만 길게 창업을 영위하고 싶은 이라면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독심 있는 단일메뉴로의 승부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단일메뉴로 창업을 해다가도 ‘메뉴를 늘리고 싶은 욕망’은 창업한 지 몇 년이 지나면 빈번히 차오르게 된다.

창업 전 분명히 대표 메뉴를 정하고 그것에 매진을 하자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를 늘려 고객을 더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은 하루에도 수 십 번씩 피어 오른다.

이것만 추가하면, 저것만 추가하면 외식업이 성공으로 차달을 것 같을 것이다.

독심 있게 대표 메뉴 한 가지로 외식경영을 하는 이에게 성공의 문을 더욱 활짝 열려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대표 메뉴 하나로 식당을 운영해 온 필자의 경험담이다.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욕망이다. 한 가지 색이 단조로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갖 추다 한들, 소리가 심심해 모든 종류의 소리와 음악을 다 얻는 다 한들 그것은 절대로 한데 어우러지지 못한다.

외식창업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대표 메뉴를 믿지 못하고 점차 메뉴가 늘어나다 보면 식당의 정체성을 불분명해지고 어디서나 흔한 개성 없는 식당으로 남게 된다.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르는 식당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남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음식이 있는가? 그 음식을 먹어 본 이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던가? 그렇다면 자신의 메뉴를 믿으면 된다.

영업 초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 메뉴, 저 메뉴를 만들어서 내놓다 보면 오는 손님들도 헛갈리고 만드는 입장에서 자신이 없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고객은 자신이 갔던 식당의 메뉴 중 두 개, 세 개의 메뉴를 기억하지 않는다. 식당을 떠올릴 때 대표 메뉴 하나만 기억한다.

‘이 식당은 이것이 맛이 있었고, 저 식당은 이것이 맛있는데 오늘은 여기로 가볼까?’라는 선택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무지 머릿속을 맴돌며 판단을 흐리게 하는 메뉴 확장의 욕망을 참지 못할 때에는 대표메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 할 것을 추천한다.

대표메뉴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가벼운 음식을 개발해 서비스 하면 테이블 객단가도 높아질뿐더러 대표 메뉴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도가 점차 올라갈 것이다.

김치찌개 식당이 김치찌개와 어울리는 계란말이를 내듯이 말이다. 단 하나의 대표메뉴와 기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앞서 이야기 했던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민하던 프랜차이즈 대표는 결국 인도네시아 진출을 포기했다.

자신이 없는 메뉴를 곁들여 성공할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쉬웠겠지만 현재 그 프랜차이즈는 강력한 단일메뉴와 그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개발로 코로나 19시 대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씨감자

몇 해 전 7월 초, 내가 일하는 학교 텃밭에서 수확을 마친 감자 밭을 걸었다. 수확 전 감자꽃과, 꽃을 따지 않으면 맺히던 감자 열매를 신기하게 보았던 밭이다. 그 풍성하던 풍경은 가고 텅빈 감자밭엔 씨감자만 남아 뒹굴고 있었다. 씨감자의 외형이 생각보다 통통하고 멀쩡했다. 감자로 거두지 않은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졌기 때문이겠다. 그렇지만 그 모양새는 버려진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싱싱해 보였다.

내가 궁금한 일은 씨감자를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씨감자를 자양분으로 먹으며 감자알이 들었을텐데, 왜 저 씨감자는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것처럼 보일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새 싹에게 양분을 다 빼앗겨(우렁이처럼) 쭈글쭈글하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야 할 것 같았다. 양분은 내주었으나 땅으로부터 수분을 보충하며 제 형태를 유지하는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 나온 동시를 우리 지역 방언으로 써 본 적이 있어 나눈다.

씨감자

거시기,
자네는 왜 빠져 있당가
자네 *타긴 자석들이 다 존 디 갓응게 좋게 생각허야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그러는 것인가
인자 우리는 여그 이 밭이서
가을, 겨울 지나다 흙이 되는 거여
난 그리도 참 좋았네
씨감자가 되어서 내가 난 밭으로 왔지
자석들도 잘 키워 더 널븐 디로 보냈지
또 죽을 때도 여그서 죽자녀
암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어쩐가
자석들 키운다고 썩빠지게 심 안 써도 되자녀
바람 불어 좋고, 흙 냄새 맡응게 참 좋네
난중에 그냥 이리저리 밭질에 채이지 않게
누가 흙으로 잘 덮어 주기만 허면 그만이네
거시기,
인자 맘 풀고 저 강냉이 여물어 가는 것 좀 보시게

*타기다: '닭다'의 방언(전북)



수확이 끝나고 남은 씨감자



감자꽃



감자열매



신술원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241-43-01344
·사업장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만연숯불갈비 미장점



군산시 공단대로 107
예약 전화 : 0507-1307-6787

Menu

구 이 류

(2인 이상 주문가능)



수제양념돼지갈비



1인 250g / 100g당 6,400원 **16,000**

LA양념갈비



1인 200g / 100g당 9,000원 **18,000**

한돈 삼겹살



1인 180g / 100g당 8,889원 **16,000**

Menu

결들임류

한우 육회*** 1*



한접시 200g / 100g당 14,000원 **28,000**

반접시 120g / 100g당 15,000원 **18,000**

화산계란찜 **5,000**

Menu

식 사 류

갈 비 탕 **15,000**

물 냉 면 **8,000**

한우 육회비빔밥 **13,000**

(on 14:30까지 주문가능)

비빔냉면 **8,000**

한우 육개장 **13,000**



Menu

고기드신후 식사

후식 물냉면 **5,000**

후식 비빔냉면..... **5,000**

누룽지..... **3,000**

된장찌개..... **3,000**

공기밥..... **1,000**

주 류

소주 **4,000**

맥주 **4,000**

막걸리..... **3,000**

청하..... **5,000**

목분자..... **10,000**

음료수.....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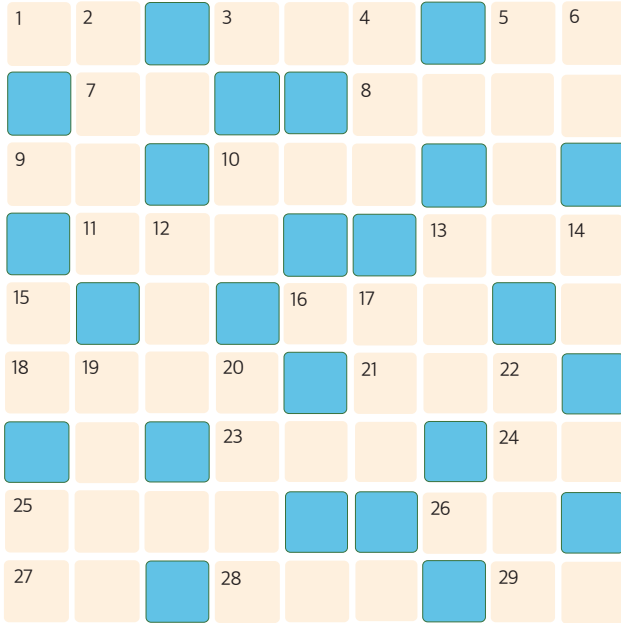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73



<172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브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브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1 해녀가 물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이 뜨게 하는 공 모양의 기구.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그릇이 달려 있다.
- 03 5월1일.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바뀐 근로자의날의 새로운 명칭.
- 05 말을 탐.
- 07 저절로 뚫. 지구의 00.
- 08 멍하니 정신을 잃음.
- 09 다섯 손가락 중 둘째 손가락.
- 10 자기가 남만 못하다는 느낌.
- 11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몹시 탐하는 사람을 알잡아 이르는 말.
- 13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는 사람.
- 16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 18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물자.
- 21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23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 24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 25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 몸을 사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6 신라 천 년의 고도로 명승고적이 많은 도시.
- 27 음식을 담는 그릇.
- 28 정보통신부의 예전 명칭.
- 29 남자의 웃옷과 갓.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

세로 열쇠

- 02 여럿이 정신이 어지럽도록 시끄럽게 떠들고 지껄이는 소리.
- 04 모든 희망이 끊어진 느낌.
- 05 이긴 사람이 이익을 다 차지함.
- 06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 10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
- 12 떡의 겉에 묻히는 고물. 어떤 일을 부장하게 보아주고 얻는 금품을 비유하
기도 한다.
- 13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 14 다른 물건이 닿거나 문어서 생긴 자리. 00이 남다.
- 15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행성.
- 17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1910년 무렵 조선 광문화에서 편찬하다 끝내
지 못하였으며 영화로도 알려졌다.
- 19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 20 한 개체에 암수 두 생식기관을 갖춘 것. 지렁이, 달팽이 따위.
- 22 남의 생각이나 사상 따위를 배척하는 사상 경향.
- 25 탁구, 테니스 따위에서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이뤄 하는 시합.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